



위성미 불꽃타... LPGA 2개 대회 연속 정상가나
 위성미가 12일(한국 시간) 미국 아칸소주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P&G NW 아칸소 챔피언십 2라운드 18번 홀에서 이글을 잡아낸 뒤 환호하고 있다. 위성미는 2라운드에서 이글 1개에 버디 7개를 쓸어담으며 7언더파 64타로 단독 선두에 올랐다. /연합뉴스

한국남자골프, 日과 맞대결서 1점차 패배

한국남자프로골프가 6년만에 재개된 일본과 맞대결에서 접전을 펼쳤지만 아쉽게 우승컵을 넘겨줬다. 한국대표팀은 12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골프장(파72)에서 열린 현대캐피탈 인비테이셔널 한일프로골프 국가대항전 마지막날 10명이 싱글 스트로크 플레이로 일본과 맞대결을 벌여 승점 5점(5승5패)을 따내며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은 첫날 포섬경기에서 뒤졌던 승점 1점을 만회하지 못하고 9.5점(9승1무10패)을 쌓는데 그쳐 10.5점(10승1무9패)을 기록한 일본에게 패했다. 2004년 처음 열린 한일대항전에서 우승했던 한국은 우위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김경태(24·신한금융그룹), 배상문(24·키움증권)이 일본의 투톱 이시카와 료와 가타야마 신고에 완승을 거둬 위안을 삼았다. /연합뉴스

광주일고 고교야구 '왕중왕' 등극

'최강전' 결승 특급좌완 유창식 12K쾌투... 영남 강호 경남고 6대1 제압

특급 좌완 유창식을 앞세운 광주일고가 고교야구 '왕중왕'에 등극했다. 황금사자기 우승팀 광주일고가 11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KBS 초청 고교야구 최강전에서 정통기 챔피언 경남고를 6-1로 제압하고 고교 최강자 자리에 올랐다. 선발로 출격한 광주일고 에이스 유창식은 9회까지 12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는 호투로 완투승을 장식하며 대회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주말 리그제'를 기념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 광주일고는 난적 휘문고를 8강에서 꺾은 뒤 준결승에서 제물포고를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만난 경남고는 올 시즌 통산 9번째 청룡기를 품에 안은 영남의 강호. 하지만 삼성과 SK의 1라운드 지명을 받은 심창민과 서진용 경남고의 두 투수가 몸져 풀지 않아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반면 광주일고는 선발을 자처한 유창식을 전면에 내세우고 초반부터 경기를 주도했다. 1회말 선두타자 백세웅의 안타로 공격을 시작한 광주일고는 1사 3루에서 3번 허일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올렸다. 7번 타자로 타석에도 선 유창식은 2-0으로 앞서고 있던 4회 1사 1-3루에서 희생플라이를 때려내며 타점을 기록했다.

7회가 승부처였다. 유창식이 갑작스런 제구 난조로 볼넷 3개를 남발하며 밀어내기로 1점을 내줬다. 하지만 2사 만루에서 유격수 팽볼로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으며 경남고의 추격을 차단했다. 광주일고는 8회말 3개의 도루를 성공시키며 경남고의 수비를 흔들었다. 안타 3개와 함께 상대의 송구실책을 묶은 광주일고는 3점을 추가하며 6-1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유창식은 9회까지 경남고 타선을 3피안타 4사사구 12탈삼진 1실점으로 봉쇄하며 최우수선수로 선정, 장학금 200만원 받았다. 결승타의 주인공 광주일고 3루수 허일은 수훈상을 받았다. 지도자상을 수상한 김선섭 감독은 광주일고 사령탑 부임 이후 두 번째 도전만에 첫 우승을 이끌어냈다. 김선섭 감독은 인하대로 자리를 옮긴 허세환 감독에 이어 지난 8월 미추홀기 대회에서부터 광주일고를 지휘하고 있다. 광주일고는 오는 10월6일 경남에서 개막하는 전국체육대회에서 광주 고등부 야구대표로 출전해 시즌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대회 MVP로 선정된 유창식 투수.

클러스터스 US오픈 2연속 정상

즈보나레바 59분만에 완파 남단식 결승 나달-조코비치

'슈퍼 팜' 킴 클러스터스(3위·벨기에·사진)가 US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에서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클러스터스는 1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12일째 여자단식 결승에서 베라 즈보나레바(8위·러시아)를 불과 59분 만에 2-0(6-2 6-1)으로 완파하고 우승했다. 2003년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단식과 복식에서 모두 세계 1위에 올랐다가 2007년 24세의 나이에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던 클러스터스는 지난해 8월 다시 투어에 복귀했다. 2008년에 낳은 딸 야다가 관중석에서 엄바를 응원하는 가운데 클러스터스는 1세트를 27분 만에 따냈고 2세트에

서도 시작과 함께 게임스코어 3-0까지 달아나 싱거운 결승전을 만들었다. 2005년과 2009년에 이어 이 대회에서만 메이저 3승째를 따낸 클러스터스는 US오픈 21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남자단식에서는 라파엘 나달(1위·스페인)과 노박 조코비치(3위·세르비아)가 결승에서 맞붙는다. 나달은 미카일 유즈니(14위·러시아)를 3-0(6-2 6-3 6-4)으로 완파해 이 대회 결승에 처음 올랐고 조코비치는 로저 페더러(2위·스위스)와 3시간43분 혈투 끝에 3-2(5-7 6-1 5-7 6-2 7-5)로 승리했다. US오픈에서 2007년 결승, 2008년과 2009년에는 준결승에서 연달아 페더러의 벽에 막혀 탈락했던 조코비치로서는 통쾌한 설욕전이 됐다. 나달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1969년 로드 레이버 이후 41년 만에 한 해에 3개 메이저 대회를 연달아 제패한 선수가 된다. /연합뉴스



KIA 흥경기 입장 관중 대상 아시안게임 응원단 10명 선정

KIA 타이거즈가 흥경기 입장관중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KIA는 14일 두산전부터 17일 삼성전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홈 4경기에 입장하는 관중을 대상으로 아시안게임 팬 응원단 10명을 선정한다. 응원단은 14~16일까지 매 경기 끝난 후 3명, 17일 1명을 추첨하는 방식으로 꾸려진다. 이전 3경기에서 대상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17일 잔여 인원을 추첨한다. 팬 응원단에 선정된 10명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광저우에 머물며 야구 대표팀을 응원하게 된다.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며 당첨자 10명은 직계 존·비속에 한해 한 번의 양도가 가능하다. 한편 KIA에서는 대표팀 사령탑 조범현 감독을 비롯해 투수 윤석민·양현종, 외야수 이용규가 태극마크를 달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www.geumsooju.com

내집같은 편안함!

광주에는 **금수장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객실요금 4만원부터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부담 없습니다. 4-5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리합니다.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 차편 15분 거리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거리, 충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분거리 흥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한 객실 Free Wifi, 비즈니스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방, 연회 등 다양한 부대시설

편안합니다. 한뼘 한뼘 직접 꿰매어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가족,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의 주요 고객

무인텔 필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h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